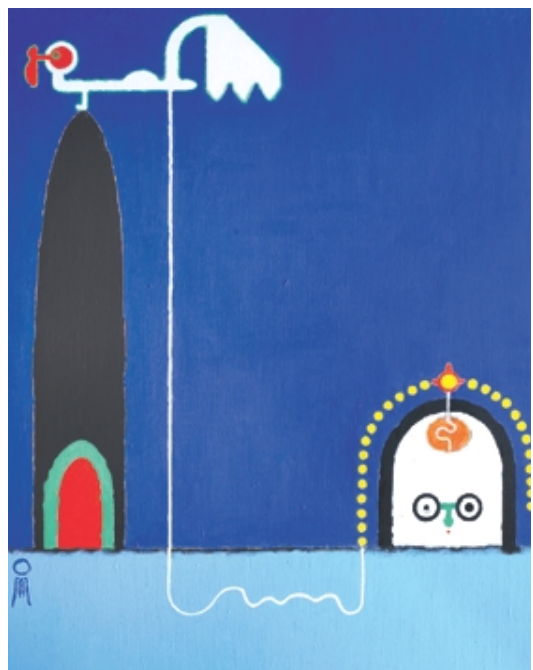


# 두 형제 스님이 바라 본 '부처'



원웅 스님의 '선화'.

속가 형제인 두 스님이 함께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경인미술관 제 2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원웅 스님(밀양 돈오선원장)과 비공 스님(분당 대도선원장)이다. 전시 장르는 다르다. 형인 원웅 스님은 추상화를, 비공 스님은 조각이다.

## 원웅 스님과 비공 스님의 현대 선화展 경인미술관 5월 9일~15일

원웅 스님은 오래 전에 외당을 소재로 한 일련의 선화로 또다시 유제화로 바꾸어 전시회를 가진 일이 있다. 그게 벌써 십여 년 전의 일이다. 한동안 세상과 소식이 두절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아크릴화로 재료를 바꾸어 그림을 재개하고 전시회를 갖게 됐다.

원웅 스님의 그림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세간의 유행과는 전혀 무관한 조형언어 및 어법을

## 원웅 스님-깨달음의 세계 조형언어로 비공 스님-철로 빛은 부처 조각 전시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해독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친숙한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직선 및 곡선으로 구성되는 삼각형을 비롯, 사각형, 원 등 기하학적이고 평면적인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하학적인 구조를 기초로 사람 얼굴이나 네 발 짐승과 새 또는 전구, 눈, 수도관 따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원웅 스님의 조형적인 세계는 한마디로 선문답과 같다. '불립문자 직지인심'에 의한 선승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변인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40여점이 벽



비공 스님의 조각 '의식의 부처님'.

명 부처님을 형상화 했다고 말한다. "얼굴이 부처님 같고 안 닮아서 사람들이 부처님인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세련된 모습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꿔놨어요. 부처님의 얼굴 모습이 현대화됐다고 부처님의 존재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공 스님은 2층 전시실에서 철로 만든 부처님 20점을 선보인다. 김주일 기자 kjim@buddhanews.com

## 데리다의 '해체론' 새 격의불교의 엔진

### 시와 세계사학회 '선을 언어로 읽는다' 세미나

'시와 세계사학회'가 '선을 언어로 읽는다'는 다소 위험스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월 28일 오후 강릉 등명락가사주지 청우에서 열린 제2회 시와 세계사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이만식 교수(경원대 영문과)는 '선과 자크 데리다-새로운 격의 불교의 모색'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이 교수는 간화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격의불교를 열어야 할 것이라 진단하며 서구의 해체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불교의 종교적 핵심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격의불교의 모색을 위한 검색엔진으로 데리다의 해체론을 동원하여 선학의 이론적 체계를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논문에서 이 교수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언어' "자비" 등의 개념을 해체론의 시각으로 조명했다.

임연태 기자



## 95년 '찬불가선정위원회' 출범

### 1990년~2000년

불교음악의 미래를 여는 찬불가 책을 편찬하기 위해 1995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찬불가선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화사회부장 시현 스님을 중심으로 문화사회국장 덕신 스님 등이 참여했다. 또한 가사 부문에는 반영규 선생이, 작곡 부문에는 김동환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편곡 부문에는 김희경 씨가 찬불가 모집과 편집을 안병길씨가 맡았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자 전국의 지도자들과

총무원에 등록해 활동했다. 1976년에 111곡을 모아 찬불가 책을 편찬해 세상에 내놓았다. 그 후 1979년도에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었다.

점차로 불교계에서 찬불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982년에는 찬불가 심의위원회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서창업, 반영규, 법계심 등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음악은 발전한다. 그러나 찬불가의 심의는 물론 음악을 전공하고 불교음악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의해야 했으나 서창업 선생을 제외한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

### 1996년 100곡 선별 <찬불가합창곡> 발간

### 90년대 초 부루나 같은 전문 중창단 탄생

이런 과정에서 선별과 심의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폐회한 뒤 준비위원회는 찬불가 선곡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100곡을 선정해 전국의 불교음악인에게 가안을 배포해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기 교수의 곡이 많이 들어갔다는 반론이 있어 작곡가 별로 7곡씩 선별한 뒤 1996년 <찬불가합창곡>을 만들어 예술의 전당에서 출판음악회를 가졌다. 찬불가를 전국적인 선별과정과 심의기구를 만들어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1970년 창립한 찬불가선정위원회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처음으로 설치되고 다음해인 1971년에는 불교연합회에서 찬불가를 공모하면서부터다. 같은 해 5월 2일에는 처음으로 공모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수상자는 '삼귀의' 반야심경'을 작사 작곡한 최영철 선생이었다. 그 후 1974년 6월에 서창업 선생이 '불교음악연구원'을 대한불교 조계종

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이런

이런 과정에서 2000년에는 25명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2,000여곡의 찬불가를 심의해 찬불가를 편찬한다.

90년 대 초 불교방송국은 전문성악인들을 모아 합창단을 구성해 활동하다 후원자가 없자 사라지게 된다. 그 후 부루나중창단, LMB중창단, 제니스트중창단이 차례로 탄생했다. 서울(부루나, LMB)·부산·대구 지도자 중창단 등이 연합해 2000년 대 초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그 후 선생님들의 수준이 향상돼 드디어 오페라단이 구성된다. 단장에는 이정기 씨가 맡고 음악 감독에는 정부기 교수가 맡아 운영했다. 전문가합창단은 시작은 1985년에 구성된 성악동인회로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공부한 수법 스님과 시범 스님, 정진 스님과 최조웅, 연정숙 선생이 함께했다. 그러나 수법 스님의 입적으로 성악동인회는 지취를 감추게 된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12

#### 도술산 도술암

선운사 도술암 지장전에는 감오년에 묵이 칠린 동학귀신 말고도 칠산바위에 빠져 죽은 것들이 저승이나 환바퀴 돌아보지며 궁궐궁궐에는 소릴 술바람이 알아듣고 그것들도 따라서 궁궐배고 있네요.

장인성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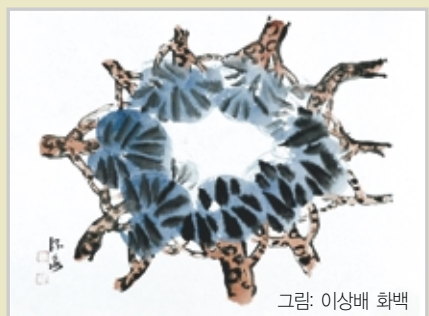


그림 이상배 화백

도술암(兜率庵)-고창 선운사 부속암자로 전국 제일의 지장도량이며, 전통준 김개남 등이 감오혁명을 맹약하고 봉기의 깃발을 지퍼든 유서 깊은 곳이다.

# 한국불교 역대 대선사를 엄선 성자(聖者)로 추대하자

한국불교사에는 왜 성자(성인, 대승 득신통대보살, 나한(아라한)가 없는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자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불교를 중흥발전시킨 역대 대선사중 10~16 대선사를 선정 성자(聖者)로 추대하고 예배공양하도록 합시다.

## 성자추대 취지문

귀의삼보하옵고, 무릇 모든 생명의 존귀함은 각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존재이지만 그 무엇보다 진공묘유의 세계에서 우주의 진리와 자기 생명의 본체인 본성을 스스로 바로 깨닫고(自覺) 남도 깨닫게 하며 (覺他) 깨달아 행함(覺行)이 원만(圓滿)하여 타(他)의 길잡이(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계 삼대(三大) 성인(聖人)을 비롯 많은 성자(聖者) '성인,들과 철학자들이 나타나 세계인류의 정신적 길잡이가 되고 있다. 부처님이 탄신하신지 2551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지 1700여년을 맞이하여 불교사를 살펴보았을 때 인도와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十大제자와 16성(聖) 500성(聖) 독수성, 1200제대(諸大) 아라한 등 많은 성인을 배출하였으나 한국불교 1700년 사(史)를 통해서는 한분의 성인(聖人)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불교 사에서도 분명 부처님과 조사(祖師)의 지혜(知慧)와 방편(方便)을 갖추어 대오(大悟) 견성(見性) 하신 후 한국불교를 중흥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적 길잡이가 된 대성사(大聖師)가 많다. 그들은 대부분 역사와 종교를 초월하여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원효성사를 비롯 의상, 원측, 자장, 도의, 의천, 지눌, 태고, 나옹, 무학, 휴정(사산), 유정(사명) 등 기라성 같은 대선사들이 있다. 그들은 크게 깨달아 대승(大乘)의 신통(神通)을 얻어 (得神通) 대보살(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라 하겠다. 우리민족도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살려 우선 불교내에서라도 불교학자들의 엄선을 통해 이런 깨진 역대선조사들을 공식적으로 성자(성인, 대보살, 나한(아라한)로 추대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정신과 위신력을 빛내며 또 우리 자신들도 성자(성인)의 후예로서 그 같은 위대한 성자(성인)가 되도록 노력하는 뜻으로 성자(성인, 대보살, 나한) 추대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2007년 4월 27일

###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태고)연구원

한국불교 승가와 불교「학회, 언론, 단체」 불자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社團法人 大輪佛敎文化(太古)研究院 이사장 無空 無上 徐甲生

서울 강북구 수유 4동 584-14, 12호 02)904-0081/0016 / 전송 02)904-0083 011-750-0016

## 大輪佛敎文化(太古)研究院 任員

대법주 중명	慧草 최태영 태고종 종정 雲山 이규범 태고종 총무원장	연구원장 상임이사	大隱 鄭煥선 태고종 중앙총회부위원장
중명:이 사	一宇 김중문 태고종 원로회의장 南峯 유정동 태고종 승정원장 寶峰 이기남 태고종 원로회부위원장 德化 권태순 태고종 원로회의원 雪峯 강남국 태고종 원로회의원 知足 김희기 태고종 원로회의원	태고학회 회장 상임이사	靑峰 강형욱 태고종 사정원부위원장
고문	홍승희 (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선림원장 상임이사	慧後 류두현 덕암화상 前문도회장
자문위원	度香 김팔영 전국일불문도회 회장 普賢 문학현 태고종 총무원부위원장 대륜화상문도회 회장	원운원장 상임이사	常虛 조성민 태고종 제주총무원장
연구사위원	徐賢吉 동국대학교 前대학원장	기획이사	慧明 김용기 태고종 동부교구부위원장
연구위원	權基宗 동국대학교 교수 宗 浩 박문기 동국대학교 교수	총무이사	慧埜 이갑복 덕수사주지
연구원	이봉춘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표 동국대학교 교수 박경준 동국대학교 교수 최 익 위덕대학교 교수 장연자 원광보건대 교수 박정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진 월 동국대학교 정무원장 법 현 태고종 사회부장 주명철 동국대 및 동명불교대 겸임교수 정성준 동국대학교 강사	교무이사 교무이사 재무이사 사회이사 조직이사 홍보이사 호법이사 연구이사	光海 송석만 금불사주지 龍潭 한국선 법장선원주지 性虛 송윤주 황룡사부주지 法京 박상인 연흥사주지 古眞 김정애 금공사주지 性德 김인대 수덕사주지 慧覺 이병태 태고종 경북부총무원장 慧充 진현국 보광사주지 普賢 이경희 해동불교 총무 賢賢基 정성개발 정인 민선화 용전사주지 여초 홍여초 비구니회 前회장 慧印 任琪植 자성포교원주지 乘芭 해원정사주지 般若月 박희서 청수주지 慧輪 최옥순 화흥사주지 覺夢 김혜승 삼륜중 부총정 太一 우종근 영인예배 대표이사
이사장	無空無上 서갑생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감사	

직인